

발전기금 문의 | 051-510-1857  
자료기증 문의 | 051-510-7600

# 도서관은 계속 진화해야 합니다!

학습과 연구 경쟁력을  
높이는 힘,  
대학 도서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도서관 모델이 필요합니다.  
창의적인 학습공유공간 조성을 위해  
발전기금 모금에 힘을  
보태주세요!

Newsletter of Pusan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효원  도서관  
Vol. 52 2022. 6.



## CONTENTS

- 04 **특별기고** 캠퍼스에서 시가 강의된다는 것에 대하여
- 08 **특집기사**  
어서 와, NEW 새벽별도서관은 처음이지?  
매일 와서 머물고 싶은 나노생명과학도서관
- 14 **도서관 200% 이용하기**  
빠르고 쉽게 개편된 도서관 홈페이지  
Web of Science 이용하기
- 18 **여기 issue** 싱싱한 비건 라이프
- 20 **#발견 #이곳**  
70년 만에 다시 부산으로,국회부산도서관 문을 열다
- 22 **시선 집중**

발행처 부산대학교도서관 발행인 설문원 발행일 2022. 06.  
편집 김유경, 박경석, 박선화, 서소영, 손다영, 전선구, 허은정  
주소 부산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  
전화 051-510-1820 팩스 051-513-9733 이메일 libplan@pusan.ac.kr  
홈페이지 <http://lib.pusan.ac.kr> 디자인 디자인웍스 051-248-1513

<효원 in 도서관>은 도서관 홈페이지와 블로그에서도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 캠퍼스에서 시가 강의된다는 것에 대하여

'세상의 모든 시학'을  
기획하면서-



**김승룡** 교수 (한문학과)  
동아시아고전학 및 한국한시 전공

**약력**  
 策院학술상(제5회) 수상  
 『경학』 편집위원장(현)  
 한국연구재단 인문학단 전문위원(현)  
 BK21 동아시아\_로컬지식교육단 단장(현)

부산대 교양교육원 원장(현)  
 부산대 중국연구소 소장(현)  
 원북원부산 운영위원장(현)  
 보수동책방골목 보존과미래포럼 운영위원(현)

**저서**  
 『승도인물지』(역)  
 『악기집석』(역)  
 『옛글에서 다시 찾는 사람의 향기』(저)  
 『고려후기 한문학과 지식인』(저)

## 1. 연기(緣起)

2014년 10월 어느 날로 기억한다. 나는 「부대신문」(지금은「채널PNU」로 통합되었다.)의 부대문 학상 시 부문의 심사를 마친 뒤 천정을 멎히 바라보고 있었다. 잠시 후 천천히 시선을 옮기다가 같이 심사하던 교수님과 눈길이 마주쳤다. 누가 뭐라 할 것도 없이 우리는 동시에 한숨을 내쉬었다. 연구실의 은은한 조명이 오히려 민망할 정도로 머릿속은 착잡해졌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문학상 우수상을 뽑기는커녕 가작이라도 찾아낼 수 있을까? 각력 차원에서 뭐라도 선정해야 할 것인데, 과연 이 원고를 가운데에서 감상이 되는 시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인가? 한편으로 새로운 작가를 발굴하는 일이나 기 빼해야 할 터인데, 아주 난처했다.

처음 시를 읽고 공부해온 지 30년이다 되어서는 듯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시가 무엇인지, 시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시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 돌이켜보면 시를 숙제로 배웠던 기억만 난다. 백일장 시간에 가장 짧게 끝내고 놀 수 있는 테마가 바로 시였던 탓에, 시를 보면 음미하기보다는 얼른 짓고 접어둔다는 생각만이 앞서곤 했었다. 이렇게 시를 접하였을 뿐, 시를 어떻게 짓고, 어떻게 감상하며, 어떻게 공유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배운 적은 없었다. 그런 눈으로 언감생심 문학상 수상 후보작을 고르고 있는 나를 보면, 투고자들을 걱정하기에 앞서 나 자신이 한심하게 여겨졌다. 어찌어찌 문학상 심사를 마치고 일어나던 나는 교수님께 불쑥 이렇게 말했다. "우리 아이들에게 전공을 넘어 시를 가르치는 강좌를 만들어볼까요?" 뜻밖의 말에 교수님은 너무 좋은 생각이라고 맞장구를 쳐주셨다. 그분이야말로 보들레르 전공자로서 늘 시를 외우며 지내는 분이었지만, 정작 학생들에게 시를 가르칠 기회가 흔치 않았던 것이 마음에 못내 걸려 했었다고 뒷날 고백하신 바 있었다. 그날 밤내로 기획안을 마련하게 된 것은 십년 연하의 나를 배웅하며 연구실 밖 복도로 나와 몸을 한껏 굽혀 고맙다며 인사하던 그분의 모습 때문이었는지도 모르겠다. 사실 1년에 1차례, 문학상 심사를 위해 만났으니, 4년간 네 차례 만났던 것이 교수님과의 연분 전부였다.

## 2. 기획을 무엇 때문에 하는가

나는 몇 가지 생각을 적어서 교수님을 찾아뵈었다. 그리고 우리는 몇 가지 원칙을 세운 뒤 하나씩 맞추어가기 시작했다. 먼저 기획을 왜 하게 되었는지 정리해보았다. 첫째, 이 강좌는 부산대학교 안의 시학적 소양을 양성하기 위해 마련한다. 둘째, 특히 학생들의 시적

교양 함양을 주목적으로 설정한다. 셋째, 시대와 지역에 얽매이지 않는 보편성을 추구하되 역사성도 잊지 않는다. 넷째, 시학을 통한 행복을 추구하며, 늘 누구의, 무엇을, 언제, 어떻게, 어디에서를 고민한다. 다섯째, 강좌를 통해 시로 마음을 열고 시 속에서 희망을 찾는다. 여섯째, 무엇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한 상상의 자유를 지향한다.

우리는 여섯 가지 기획 의도를 정리하면서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고, 내심 흡족해 했다. 그간 부산대학교 안에 시를 가르치거나 공부하는 것은 특정한 학과나 동아리에 맡겨져 있었다. 아마 국내 대부분 캠퍼스가 그러할 것이다. 특히 시를 창작하는 사람에게 한정하지 않고, 더 넓은 범위에서 시를 이야기하거나 감상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 시가 일상에서 향유되고 노래되기 위해서는 누구나 시를 쉽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캠퍼스 분위기 자체가 시와 가까워져야 한다고 믿었다. '시학'이란 학술적 용어를 쓰면서도 '시적 교양'이란 일상적 체험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바로 그 이유에서였다.

파리에서는 봄이면 도시 전체가 시를 이야기하는 축제가 있다고 한다. 봄이 되면, 시를 낭송하고, 시를 노래하며, 시를 짓는 것이다. 한마디로 파리가 시로 물드는 것이다. 우리는 시가 소수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이의 일상이 될 때, 우리의 삶은 더 풍요로워질 것으로 생각했다. 흔히 시는 시인과 같은 특정한 감수성을 지닌 사람만이 누리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면서 이것이 대학 내에서 이뤄지는 교육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잊지않고자 했다. 캠퍼스 안에서 이뤄지는 모든 행위는 '교육'이라는 대전제 아래에서 이뤄져야 한다. 호사적 취미를 위해 교육이 복무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세모시 강좌를 시작하던 즈음, 직선제 총장 후보자들이 찾아온 적이 있었다. 교수 일부가 참여하는 강좌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일종의 유세차 방문했던 것이다. 우리는 동료 교수들의 노크에 반가워하면서도 내심 당황했고, 결국 발길을 돌리시도록 권유했다. 이 강좌가 교수들의 친분을 다지는 모임으로 전락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다행히 교수님의 연륜 있는 재치로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이 원칙은 지금도 마찬가지다.

「세상의 모든 시학」은 교수들의 시적 조직이 아니다. 물론 학생들의 조직도 아니다. 그렇다고 도서관의 조직도 아니다. 이 강좌는 특정 집단이나 기구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두가 교육이란 공적 기반 위에 공유할 수 있는 공공재인 것이다.

시학은 보편적이되 역사적임을 잊지 않고자 했다.

시학의 근저에는 정감이 자리잡고 있는 바, 그 정감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이의 몫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학은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행위를 다룬다는 점에서 보편적이지만, '그 사람'이 특정한 시간과 공간에 규정되고 있다는 점에서 철저히 역사적이다. 우리의 학생들에게 21세기를 살면서 로마시대나 조선시대의 감성을 옳게 요구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정감의 고갱이는 간직되되 그것이 지금 이곳과 맞서며 생성되는 감정을 주목하는 것이 적절하리라 생각했다.

궁극적으로 시학은 모두의 행복을 위하여 존재해야 한다고 믿었다. 강단의 시학강좌가 그닥 즐겁지 않음은 바로 시학을 위한 시학이어서 그러했다. 언젠가 시학을 강의하던 교수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다. 이분도 또한 부대문학상 심사차 만났었다. 김준오라는 걸출한 시 평론가의 세례를 받았던 그는, 오랫동안 전공내 시학강좌가 형해화되었음을 안타까워했다. 그리고 이렇게 진단했다. "평론을 위한 시 창작은 끝내 시의 생명을 단축시키고 말았습니다." 즉 남의 눈을 의식하면서 지어낸 시는 결국 시가 되는 이유를 잃어버렸고 유희를 위한 놀이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이었다. 조선의 진지한 지식인들이 간혹 시를 여기(餘技)라고 불렀던 것도 이로부터 기인한다고 하겠다. 시가 사람과 멀어지고 기계적인 시로서만 존재할 때, 결국 고향과 젖줄을 잃어버린 채 떠도는 부유물로 변해버리리라. 그래서 우리는 시학이 학생들의 행복과 맞닿아있기를 소망했다. 시를 통해 행복해지되, 이것이 시간과 장소와 이유에 상관없는 대원칙으로 받아들여지기를 원했다. 이후 「시를 통한 행복」이란 원칙은 강연자에게 강의를 부탁할 때 반드시 요청하는 조건이 되었다. 즉 기획자들이 듣고 싶은 강의를 조직한 적은 없었으며, 학생의 행복을 위한 강의를 조직하고자 했다.

물론 이 강좌를 통해 시를 통한 희망의 확보와 더 나은 삶을 위한 상상의 자유를 원벽하게 보장하기는 어렵다. 허나 '희망(希望)'이란 단어가, 지금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 대상을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뜻을 갖고 있지 않던가! 우리는 산 너머의 그것, 강물 저편의 그것, 구름에 막혀 보이지 않는 그것을, 시를 통해 배우고 익히며 상상할 수 있기를 기원하였다.

## 3. 강의는 누가 할 것인가

세모시는 누가 강의할 것인가? 쉽지 않은 일이었다. 일단 재원이 없었다. 누가 강의로도 주지 않는 곳에 자신의 시간을 아낌없이 내어줄 것인가? 게다가 번거로운 연락과 장소 섭외, 포스터를 붙일 사람도 하나 없었다.

학과의 일이 아니니 조교의 조력을 구할 수도 없었고, 지도학생을 데려다 시키는 것은 더욱 하지 않으려고 했다. 자신의 학업과 무관해 보이는 일에 동원되는 것을 달가워할 대학원생이 누가 있겠는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면 달랑 '마음' 두 글자뿐이었다. 이 마음 또한 얼마나 지속될지 알 수 없는 노릇이었다.

언젠가 작은 화랑에서 담장을 그린 그림을 본 적이 있다. 길이 흐르다가 벽으로 막힌 채 끝나는 그림이었다. 그런데 제목은 '길'이었다. 그림 옆에 서 있던 화가에게 물었다. 길이 끊어졌는데 「길」이라는 제목을 붙인 것은 억설(臆說)이 아니냐고 물었다. 그 화가는 웃으면서 담장 너머로 길이 나 있습니다 라고 곱게 말해주었다. 아차 싶었다. 문학을 전공한다는 사람이, 눈에 보이는 데에 집착해서 보이지 않는 길, 숨어있던 길, 곧 열릴 길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니! 「주역」의 「공작통(窮則通)」이란 말을 되뇌던 내가 민망해졌다. 바로 이때 겪었던 마음을 생각하면서, 강연의 구성원칙을 몇 가지 정리하였다.

첫째, 시학을 공부하거나 시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강연자로 가능하다. 둘째, 최대한 대학 내 구성원 가운데에서 강의가 가능한 분들을 우선적으로 모신다. 셋째, 대학 내 구성원으로 총망라되지 않을 경우, 대학 밖에서 활동하는 분들을 모신다. 넷째, 시를 자신의 전문분야와 엮어서 강연해줄 수 있는 분들을 모실 수 있다. 이 강좌는 강의를 하는 강연자와 강의를 듣는 학생으로만 구성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사실 기획진과 운영진(도서관)은 주제로 인정하지 않았다. 중간에 연결하는 고리일 뿐, 이들이 소유주가 되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했다. 게다가 강연자와 학생은 서로 대등한 관계라는 점도 세웠다. 흔히 갑을관계로 불리는 관계가 아니라, 상대가 없으면 내가 존재할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이었다. 이는 최근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확신하게 되었다. 학생 없는 강의는 존재할 수 없었다. 소통과 교류 없는 강의는 결국 허공에 내뿜는 혼잣말에 불과했다. 시학은 강연자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데에는 한 가지 의도가 숨어있었다. 즉 지금은 먼저 시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고 있지만, 먼 훗날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강의를 조직하고, 서로 강의해주는 시기가 올 것이고, 그때 학생들은 스스로 강연자가 되어 상호학학(相敎相學)하는 관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잠재적 시학 강연자라는 희망을 살짝 심어놓았던 것이다.

특히 둘째 원칙은, 대학구성원으로서의 책무와 관련이 있었다. 처음에는 강연자를 쉽게 구하려고, 시학을 전공하는 교수들이 전공강의에서 하던 내용을 교내 학생들에게도 특강해주도록 요구하고자 했다. 우리대학

학생들을 우리 대학교수가 가르치는 것이 훨씬 책임 있게, 애정어리게 가르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대학밖의 훌륭한 분을 모실 수는 있지만 교내 구성원의 노력도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옳게 시학만 전공하는 강사진을 구성하는 것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었다. 실제 시를 전공하는 교수는 다섯 손가락 안에 들 정도였다. 이는 지극히 현실적인 이유에서 취한 원칙이었지만, 따지고 보면 학문간 융합과 접속을 예기(豫期)한 것이기도 하였다. 실제 강연자들의 전공은 지극히 다양했다. 이른바 시인을 비롯해 문학자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미학자, 철학자, 사회학자, 물리학자, 한의학자, 법학자, 재료공학자, 항공우주공학자, 정치학자, 영화학자, 미술학자 등 전공은 다양했다. 저마다 자신의 전공과 관련하여 시학을 구성하여 강의해주었다. 이를테면 불교철학과 시학을 연결하거나, 정치사회 현실과 시를 관계짓기도 하고, 우주를 시학적으로 이해하며, 시를 통해 학문적 자세를 성찰하는 강의도 있었다. 시가 일상적임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그리고 학교 내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학교 밖에서 강연자를 구하도록 하였다. 이를테면 쿠바나 포르투갈 등과 같은 강의는 국내에서도 강연할 수 있는 분이 드물었지만 초빙할 수 있었고, 시인을 직접 모셔서 창작의 경험을 나눌 수 있는 기회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대학의 안과 밖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두었던 것이다.

## 4. 강좌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나의 강좌가 오래 가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간담 없는 관심과 기획, 그리고 지속가능한 운영방식이 요구된다. '누군가'는 가능하면 복수여야 하며, '지속가능성'은 운영의 심플한 구성과 책임 소재의 명징성에서 보장된다고 보았다. 특히 기획자와 운영자 사이의 명확한 역할분담과 공적 마인드의 유지가 아주 중요했다. 세모시는 다음과 같이 운영하고자 했다.

첫째, 강좌 운영의 지속성과 책임있는 기획을 위해 기획위원을 둔다. 둘째, 강연에 참가한 사람들은 언제든지 강좌와 관련해 의견을 낼 수 있다. 셋째, 강좌는 정기 강좌와 특별 강좌로 나뉜다. 전자는 주제에 맞는 시학을 강의하며, 후자는 시인이 특강한다. 전자는 1년에 6회로 진행하되, 상반기는 3-5월에, 하반기는 9-11월에 실시하며, 후자는 12월에 진행한다. 넷째, 강의 방식과 내용은 전적으로 강연자에게 맡긴다. 다섯째, 강연자는 재능기부 방식으로 강의한다. 여섯째, 강의 장소는 학생들의 접근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안정적인 기획을 위해 별도의 기획위원을 두고자



했지만, 처음 마음을 내었던 두 사람이 오랫동안 기획을 전달해왔다. 그러나 강연을 하셨던 분들이 다시 새로운 분을 소개해주거나 섭외해주기도 했고 강좌를 다시 찾아와 자리를 같이한 적이 많았다. 결국 강좌에 참여했던 이들이 모두 기획위원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처음 기획자들을 「Poetica in PNU」라고 불렀지만, 어떤 조직적 구성을 의도한 것이 아니었으나만큼, 이 이름은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다만 도서관에서 기획자들 배려하여 지칭하는 경우는 있었다. 강좌를 기획하던 운영하던 청중으로 참여하든, 모든 이들이 「Poetica in PNU」였다.

강좌는 대학 내에서 진행되며 학생을 주 대상으로 설정하였기에, 학기중에 진행하고자 했고, 월 1회에 한정하여 강좌를 구성하였다. 그래서 상반기 3회, 하반기 3회로 구성하되, 실제 창작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1년의 마지막 달, 12월에 시인특강을 마련하였다. 「시인특강」은 차후 「포엠과 뮤직」으로 바뀌면서 시인과 음악가를 같이 초청하도록 하였다. 시인의 진솔한 강의와 같이 어우러지는 성악가나 재즈음악가의 목소리가 캠퍼스내에서 공명을 일으킬 수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한 일이었다.

이 강좌의 특별한 장점 두 가지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강연은 모두 재능기부로 이뤄졌다. 누구도 대학 내 강의가 강연료 없이 이뤄지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었다. 과연 어떤 분들이 이 방식을 수긍했을 것인가? 한번은 이런 경험이 있었다. 강의를 부탁드리면서 강연

료는 준비되지 않았다고 말씀드리고, 이 강좌가 학생을 위한 것임을 강조하면서 기획의 뜻을 장황하게 설명드렸다. 실은 재능기부 요청을 정당화하려는 알팍한 수를 쓴 것이었다. 그런데 그 교수님의 대답은 감동적이었다. “나는 돈을 준 만큼 강의를 합니다. 그런데 강의료가 없으니, 내 마음대로 강의하면 되겠지요? 마음껏 강의하도록 하죠.” 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런 대답을 들을 줄이야. 이 교수님은 강의장소에 나와서 진심을 다해 강의하셨고, 끝에 이런 말씀도 하셨었다. “나는 20년간 시 강의를 맡아왔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전공 진도를 뽐느라고, 시란 무엇인지, 시를 통해 무엇을 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나는 강의다운 강의, 하고 싶었던 시 강의를 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동이었다. 또 다른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었다. “아직은 대학이 죽지 않았네요. 이렇게 돈과 무관한 강좌가 가능하다니!” 지금도 대학 내 전임교수는 재능기부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또 하나, 이 강좌는 매월 금요일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에 진행된다. 이 강의시간은 처음부터 한번도 바뀌지 않은 채 유지해오고 있다. 처음 금요일에 강좌를 진행한다고 할 때, 주위사람들은 다들 만류했다. 게다가 오후 3시에 시작된다고 하면 고개를 내저었다. 주지하다시피 주말이 시작되는 즈음이라 캠퍼스에 남아있는 학생들이 별로 없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런 모습 또한 부산대만의 사정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놀랍게도 매 강좌마다 학생들은 찾아왔다. 자발적으로 찾아온 학생

들은 ‘질문’까지 한다. 듣고 싶어 온 학생들이니 당연한 풍경이었다. 물론 이름난 사람이 대형으로 강의하는 규모에 견줄 바는 아니다. 당연히 우리는 그런 강좌의 모습을 원하지도 않았다. 한두 사람이 찾아와도 시를 좋아하고, 시학을 배우며, 진심으로 시를 이야기할 수 있으면 족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우리는 학생을 동원하지 않고자 했다. 오직 도서관에서 해주는 홍보가 전부였다. 학생이 다섯 손가락 수만큼 찾아오더라도 강의는 멈추지 않았고 진행되었다. 이들은 요즘말로 ‘찐팬인 셈이었던 것이다.’

강의를 위해 도서관은 가장 아름다운 공간을 아낌없이 내주었다. 처음엔 아늑한 오디오룸을, 다음은 책과 같이 전시된 문화공간 로비를, 그리고 22년 5월부터는 멋진 북카페를 강의공간으로 제공하였다. 찾아오는 학생을 위해 직원들은 웃음으로 일일이 맞이해주고, 강사가 마음껏 강의하도록 최대한 편의를 돌봐주었으며, 공간은 늘 강의를 위해 최적화시켜 놓았다. 도서관은 우리와 처음 나누었던 약속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실천해 오고 있었다. 따지고 보면, 우리는 기획만 했지, 실제 강좌가 진행되도록 홍보에, 안내에, 정리에, 번거로운 문서작업에 수고를 아끼지 않은 도서관 실무진들의 노고는 칭찬 받아 마땅하다. 거들 그들의 성실함과 진지함에 고마울 뿐이다. 내가 듣기에, 어떤 직원은 세모시 강좌 진행을 하느라고 뒷사람에게 질책을 들었다고 한다. 실제 본인들이 맡고 있는 업무가 많음에도, 이 강좌의 안착을 위해 아낌없이 시간을 투여하다 벌어진

일이었다. 그런데도 나에게든 같이 기획을 맡고 있는 교수님에게든 싫은 소리나 내색을 보인 적은 한번도 없었다. 오히려 우리에게 고마워할 뿐이었다. 사실 우리는 이들의 진심어린 동행이 참으로 고마웠었는데!

이렇게 운영된 강좌는 이제 7년이 지났다. 2014년 기획단계까지 시간에 포함시키면, 내년이면 10년이 된다. 그동안 강의를 기쁘게 수락해주고 성실하게 수행해준 분들의 이름을 남기고 싶지만, 오히려 그분의 이름에 호가호위(狐假虎威)하는 혐의가 있을 듯하여 아쉽지만 강의제목을 남기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강의마다 사연이 있어 할 말은 많지만 그에 대한 코멘트는 생략하도록 한다. 그간 2020년 상반기 세 차례 강의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취소된 것을 빼고는 한번도 쉬지 않고 강의는 열렸다.

**2015년**

- 제1강. 보들레르의 <악의 꽃>과 현대시
- 제2강. 에른스트 안들의 구체시와 독일의 구체시학
- 제3강. 선시(禪詩): 시로 만나는 명상과 깨침의 세계
- 제4강. 엘리아트와 <알프레드 프루프라의 언가>의 시적 기법
- 제5강. 17자의 정형시\_하이카이(俳諧)의 세계
- 제6강. 두보의 <곡강>과 마음 읽기
- 제7강. 은유와 사랑(시인 특강)

**2016년**

- 제8강. 문학적대응으로서의 한국 현대시의 어제와 오늘
- 제9강. 우주의 시
- 제10강. 순간에 대하여, 혹은 없는 것에 대하여
- 제11강. 중앙아시아 구비서사시 마나스
- 제12강. 시는 감동(+)이다
- 제13강. 소리의 절주와 조화, 시를 읽는 열쇠
- 제14강. 지금 나의 시가 멈추었어도(시인 특강)

**2017년**

- 제15강. 파리와 보들레르
- 제16강. 원현과 릴케
- 제17강. 송도와 황진이
- 제18강. 통영과 백석
- 제19강. 교토와 이즈미사카부
- 제20강. 샹트 뵘페르부르크와 푸쉬킨
- 제21강. 발트국의 낯선 아름다움을 찾아서(시인 특강)

**2018년**

- 제22강. 무엇이 성공인가\_랄프왈도 에머슨
- 제23강. 맥락의 추론과 재구성\_근대 이전 우리 시가의 이해
- 제24강. 존 케이지, 침묵과 우연성
- 제25강. 나혜석과 노라들, 시로 외치다
- 제26강. 인생에서의 선택이란\_로버트 프루스트
- 제27강. 인생을 스포츠처럼\_시와 건강한 삶
- 제28강. 시와 혁명\_호세 마르티노의 별빛을 따라(시인 특강)

**2019년**

- 제29강. 도서관 거인의 노래
- 제30강. 사랑과 아별, 지천명이 보인다
- 제31강. 시와 하늘

- 제32강. 테드 휴즈와 살아아름다운 사랑과 결혼, 신화로넘은시
- 제33강. 문학적 상상력과 공공성
- 제34강. 현대미술과 현대물리학\_존재의 의미를 관계에서 찾다
- 제35강. 장자의 내비, 슈베르트의 <겨울나그네>를 만나다 (포엠과 뮤직)

**2020년**

- 제36강. 벨 훅스의 <올 아바웃 러브>
- 제37강. 오구라하쿠닌잇슈(小倉百人一首)의 여류가인들
- 제38강. 도리스 레싱\_<풀잎은 노래한다>와 <황금노트북>의 페미니즘
- 제39강. 생태적 감수성과 사랑에 대하여(포엠과 뮤직)

**2021년**

- 제40강. 이육봉의 <자술\_나의 이야기>
- 제41강. 마르그리트 뒤라스의 <연인>
- 제42강. 김혜순의 <피어라 돼지>
- 제43강. 이사벨 아옌데의 <영혼의 집>
- 제44강. 김수영은 여성 혐오주의자인가
- 제45강. 소피아드멜로의 <새로운 바다>
- 제46강. 시의 악보를 찾다(포엠과 뮤직)

**5. 시를 통한 더 나은 세상을 그리며**

대학에서 시가, 시학이 강의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나는 시가 가장 인간적인 표현방식이라고 생각한다. 세상의 모든 학문은 모두 인간을 위해 복무하며, 인간의 정신을 대변한다. 인문학이든 자연학이든 공학이든 경영학이든 모두 그러하다. 인간이 만들어낸 무늬, 아름다운 무늬가 바로 인문(人敎)이요 인문(人文)이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인간이 갖고 있는 마음의 결을 간명하되 복잡하고, 모호하되 뚜렷한 방식으로 드러내는 것으로 시만한 것은 없다. 처음 시를 읽으면 흐릿하던 모습이 반복해 읽노라면 또렷하게 다가오는 확신을 경험하지 않았던가! 이런 경험은 몇몇 전공학자들의 전문율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왜냐하면 인간의 보편적 감성을 건들고 있기 때문이다. 해서 처음 시 창작을 돕기 위해 준비되었던 강좌는 어느새 대학구성원 일반의 감성적 교육과 훈련, 공감과 배려를 위한 강의로 선별(善變)하고 말았던 것이다. 애초에 의도하지 않았던 일이 었다. 우리는 처음 시작하고난 뒤, 시작(詩作)의 오류를 교정하는 일도 해보려고 했지만, 끝내 수행되지는 못하였다. 이 강좌가 스스로 성장하고 있었고, 그 방향은 창작교실 수준을 넘어섰던 것이다. 앞으로 어떻게 성숙하여갈 지 귀추가 주목될 뿐이다.

우리는 이 강좌가 우선 강연자들에게 귀한 자리가 되고, 학생들에게 좋은 기억이 되어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기를 기원한다. 물론 이런 감성적 공감이 차후 미래의 시학은 물론, 미래의 사회, 미래의 인간을 위해서도 긍정적 자산으로 남기를 기원한다.

무엇보다 이 강좌가 지속가능하기를 희망한다. 그리고 소박하고 자유롭게 살아남기를 기대한다. 혹여 권력이 작동하거나 개입하는 순간이면 이 강좌가 멈추기를 바란다. 이 강좌는 대학구성원 모두의 더 나은 상상력의 자유를 위해서 준비되었고, 이를 해치는 어떤 구속도 단호히 거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강좌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서로 배려하고 사이좋은, 그런 '아름다운 강좌'가 되기를 희망해본다. 특히 학생들로부터 사랑받는 강좌가 되기를 꿈꾼다. 저 옛날 훌륭한 지식강좌는 대부분 학교에서 이뤄졌다. 지금은 이와 비슷한 강좌들이 학교 밖에서 많이 열리고 있는 바, 이는 대학이 제 역할을 하지 않음을 말해준다고 하겠다. 나는 대학의 안이든 밖이든 모두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우리는 대학 안에 있으니, 학교 안에서 소박한 강좌를 시작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몫이 아닐까 생각할 뿐이다.

끝으로, 강좌의 이름을 「세상의 모든 시학」으로 지은 이유를 말하면서 마무리를 하고자 한다. 눈치를 채셨겠지만 어느 음악 프로그램의 이름을 차용하여 지었다. 나와 같이 기획을 맡은 교수님은 처음 강좌를 기획할 때 각각 강좌명을 고민해오다가 두말 없이 이 이름으로 확정했다. 두 사람 모두 그 음악 프로그램을 즐겨 들으면서, 세상의 모든 음악이 주는 기쁨과 슬픔, 위안과 배려에 감동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강연을 맡은 분들로부터 강의를 듣는 사람들 모두가 이 강좌를 통해 자신이 안고 있는 상처를 위로받고 세상과 착하게 어우러지면서, 나 아닌 다른 이의 감성세계를 너그럽게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기를 기대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시들이, 시학들이 우리의 삶을 더욱 넉넉하고 포근하게 만들 것이라고 믿는다. 이 강좌의 처음부터 지금까지 거의 결석없이 참가하신 노시인이 계시다. 청바지에 바람머리 날리는 모습을 보면 영락없는 청년인 그분이 우리에게, “한두 번 하다 말 줄 알았는데, 8년간 지속되다니!”라 말하며, 호뭇한 눈빛을 주었던 적이 있었다. 최고의 칭찬이었다. 이 칭찬을 강좌에 생명을 불어넣어준 강연자들, 학생들, 그리고 도서관 직원들에게 돌려려 한다 고맙다. 진심으로 고맙다. 시를 통해 더 나은 세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더 가깝게, 더 확연하게 다가오는 듯하다.

이 글은 '나라는 1인칭 시점으로 쓰이지만, 「세상의 모든 시학」(이하 '세모시로 약칭한다.) 강좌의 기획을 책임져왔던 두 사람(필자와 불어교육과 김중기 교수님)을 같이 가리킨다. '우리가 같이 지냈던 문제의식과 실천을 중심으로 집필되기 때문이다. 물론 어떤 부분은 필자만의 생각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교수님께서 양해해주실 것으로 믿는다.

# 어서 와, NEW 새벽별도서관은 처음이지?

## SaeByeokBeol Library

새벽별도서관이 새롭게 단장했다. 기존의 보존서고였던 1층 전체를 학생들이 학습, 연구, 휴식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 것. 27만 권의 책들에게서 2만 7천 명의 학생들 품으로 돌아간 그 공간을 구석구석 속속들이 살펴보자!

### 로비 Lobby

새벽별도서관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맞이하게 되는 공간이다.

**오른쪽**: 북갈러리, 동쪽 아침 햇살이 가장 먼저 비추는 곳이라는 의미를 가진 새벽별도서관 사인, 사서들이 직접 큐레이션한 책들이 전시될 예정

**왼쪽**: 256인치 LED 스크린으로 현재 교내에서 가장 큰 스크린, 8K의 초고화질 영상 상영이 가능하며, 학교 홍보영상이 쉬지 않고 상영된다.



### 01. 계단 밑 틈새 공간

계단 밑 틈새 공간을 이용하여 공부하다 지친 학생들이 잠시 편히 쉴 수 있게 빈백을 비치했다.

### 02. 화장실

그동안 노후화가 심해 민원이 많이 발생했던 화장실이 새롭게 변신했다. 고급 자재와 분위기 있는 조명, 파우더룸 등을 구성하여 럭셔리한 화장실로 재탄생했다.

### 03. 로비

iCOMMONS 내에 있던 사무공간이 정문 입구로 이동하면서, 도서관 게이트를 들어 오지 않고도 반납과 대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 이노베이션 파크 Innovation Park

기존의 iCOMMONS와 사무공간을 이노베이션 파크로 조성했다.

데스크탑 PC가 많았지만, 개인 휴대용 디지털기기를 사용하는 이용행태의 변화에 발맞추어 학술정보 검색을 위한 최소한의 PC만 남겼다. 미디어 존에서는 도서관에서 구매한 DVD를 대여하여 감상할 수 있고, 스마트TV가 구비되어 있어 넷플릭스, 애플TV 등 OTT 플랫폼에 접속하여 각종 영상과 강의를 시청할 수 있다. 5월 9일 새롭게 도입된 좌석배정시스템인 PNU플레이스 모바일 앱을 통하여 스터디룸과 매체제작실, 캐럴실 등의 예약이 가능하며, 키오스크에서 좌석배정이나 예약확정이 가능하다.

### 01. 단방향 열람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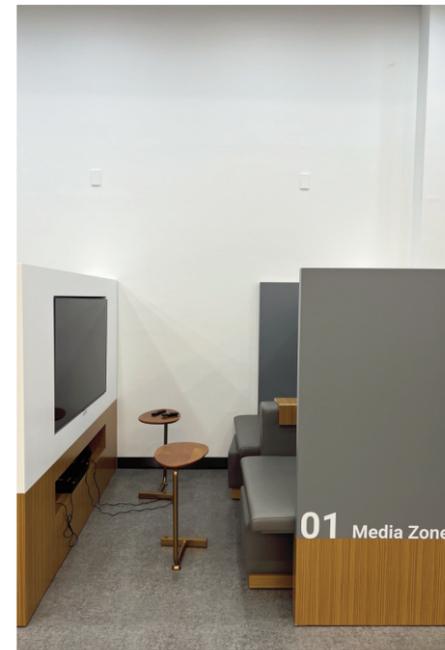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롭고 집중도가 높은 단방향 열람공간이다. 개인 조명을 사용할 수 있으며, 모든 좌석에 콘센트가 마련되어 있어 노트북 등 디지털기기 사용이 가능하다.

### 02. 그룹 스터디룸

그룹 스터디룸은 전자칠판이 설치되어 있어 PC 없이도 기본적인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다. 또, 책상에 설치된 HDMI 케이블을 개인 노트북에 연결하여 전자칠판을 통해 토론과 공동 학습이 가능하다.

### 그룹 스터디룸 이용방법

모바일 앱으로 스터디룸 예약 → 예약한 인원이 다 같이 키오스크에서 예약 확정 → 비밀번호 전송 → 스터디룸 패드(단말기)에서 입장을 누르고 비밀번호 입력 → 입장!



### 03. 매체 제작실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공간이다. 촬영용 탑조명과 고사양 카메라, 일반 백색 스크린과 크로마키 스크린 동시에 설치되어 목적에 맞게 사용이 가능하다.

### 04. 매체 편집실

매체제작실에서 촬영한 영상과 콘텐츠를 편집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갖춰진 편집실이다.



## 러닝 커먼스 Learning commons

기존의 보존서고 공간으로 27만여 권의 장서가 있던 곳을 러닝커먼스로 꾸몄다. 파벽돌과 천장 루버, 따뜻한 조명이 어우러져 타 도서관 공간들과는 차별화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늘 영상과 함께 편안한 음악이 흘러 카페에서 공부하는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다. 프로젝트 빔과 음향시설을 이용하여 강연이나 음악회도 가능한 복합문화공간이다.

이전에 보존서고와 기록관을 연결하던 공간이다. 보존서고와 기록관 사이에 있던 단차를 활용하여 넓은 계단을 만들고 편안한 소파와 낮은 가구들을 비치했다. 또한, 러닝커먼스에서 강연이나 공연이 이루어질 경우, 스피커가 연동되어 있어 이곳에서도 보고 들을 수 있다.

도서관 밖에 있던 커피빌리지와 복사실이 도서관 안으로 들어왔다. 무인출력실은 24시간 운영되어 학생들의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 그 외 공간 Other space

### 01. 복문 게이트

원래 이곳은 이용자 출입이 불가능했던 곳이었지만 새롭게 게이트를 설치하여 어디서든 이용자들이 새벽별도서관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강화했다. 특히, 사회관, 경영관, 법학관에서 내려오는 학생들에게 편리할 것으로 기대된다.

### 02. 야외마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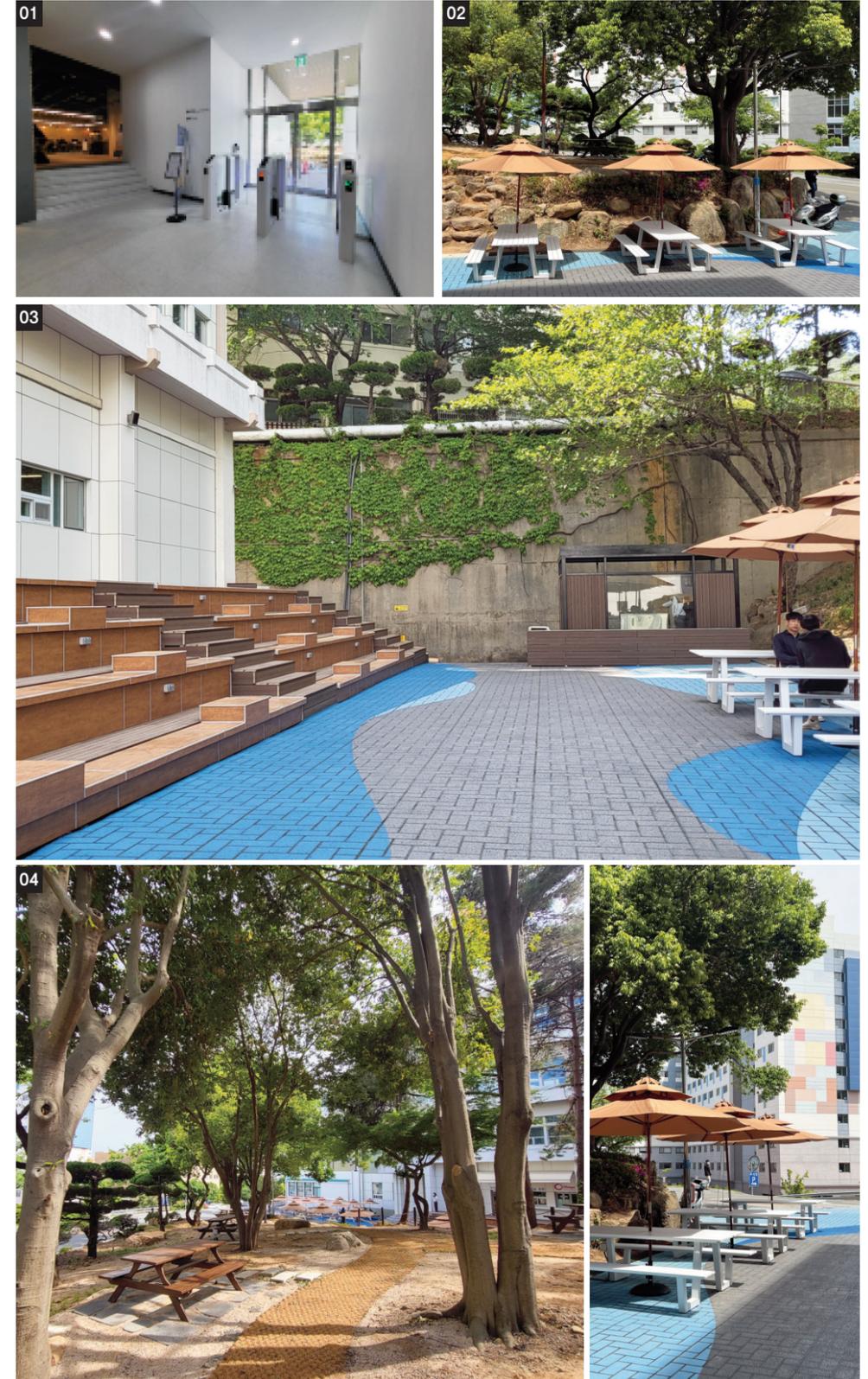
기존의 커피빌리지와 복사실 건물이 있던 곳으로, 철거 후에 생긴 넓고 트인 공간을 활용해 야외 쉼터로 꾸몄다. 파라솔 테이블에 앉아 음료를 마시거나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했다.

### 03. 데크

간접조명을 설치하여 은은한 분위기를 내는 야외공간이다. 사회대 쪽 동산의 나무들을 바라보며 쉴 수 있으며, 커피를 올려놓을 수 있는 사이드 테이블을 만들어 편의를 높였다. 특히, 도서관 야외 테이블에도 전기 콘센트를 설치하여 자유롭게 디지털 기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 04. 동산

야자매트를 깔아 동선을 만들고, 곳곳에 테이블을 설치하여 나무 아래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했다. 옹벽 구석에 흡연 부스를 만들어 흡연 가능한 공간을 만들었으므로, 다른 공간에서는 담배 연기 없이 야외공간을 즐길 수 있다.



# 매일 와서 머물고 싶은 도서관, 나노생명과학도서관



나노생명과학도서관이 개관 이래 첫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다. 기존 도서관의 정적인 분위기를 탈피하고, 학생들의 요구가 많았던 개인 학습 공간과 휴게 공간을 확대하여 쾌적하고 활력 있는 공간으로 변신했다. 나노생명과학도서관이 앞으로 교내에서 학생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하면서 새롭게 변한 모습을 소개한다.

## 시작을 알리다

부산대학교 밀양캠퍼스 나노생명과학도서관이 최신 도서관 트렌드와 학생들의 도서관 이용 패턴을 고려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마무리하고 2022년 4월 4일 새단장 기념식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 1F 러닝커먼스 공간



### 여유로움의 미학

나노생명과학도서관 게이트를 통과하면 제일 처음 눈길에 가는 공간으로 호텔 로비의 안락한 분위기를 생각하며 소파 및 테이블을 구성하였다. 또한 1층 러닝커먼스는 잔잔한 음악이 흐르는 공간으로 딱딱한 느낌의 도서관이 아닌 여유로운 카페와 같은 느낌의 공간을 추구한다.

### 나와 너 그리고 우리를 위한 공간

좌측 소파테이블은 4~6인 좌석을 배치하고 목재느낌의 가벽을 세워 시야를 집중할 수 있는 효과를 주면서 한편으로는 너무 답답하지 않도록 하여 조별과제 또는 그룹 스터디에 최적화 된 공간으로 만들었다.

육각형 모양의 1인 테이블은 플랜테어의 조합으로 지루하지 않은 그리고 개인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는 공간이다. 자리마다 콘센트가 설치되어 있어 노트북과 자료를 함께 보는 학생에게 좋은 공간이다.



### 창과 더불어 넓어지는 지식

채광이 좋은 창가를 따라서 일렬로 늘어선 1인 열람 테이블은 고개를 들면 푸른 잔디와 나무를 만날 수 있다. 직선으로 내려오는 노란 조명은 오후에 내 공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창가를 바라보는 좌석으로 사람이 움직이는 모습이 시야에서 차단되기 때문에 집중을 위해 학생들이 애용하는 공간이다.

### 커뮤니케이션 아지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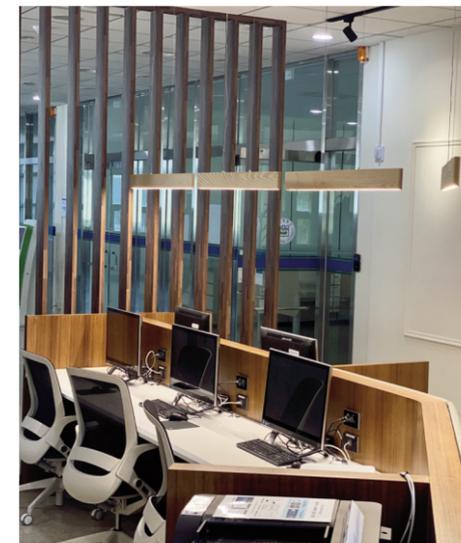
기존 인터넷 프라자가 있던 공간이 리모델링을 통해 그룹 회의가 가능한 공간으로 변신했다. 공간을 구분 짓는 파티션은 실용성을 높여 메모가 가능한 보드로 만들어 이용자가 보드마크를 이용하여 메모하고 지울 수 있다.

### MZ세대 눈높이의 공간

1층 중앙 공간에는 프렌차이즈 카페의 느낌으로 대형 테이블을 위치하여 카페에 와있는 듯한 기분이 들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내셔널지오그래픽, 타임즈 등 과년도 연속간행물(잡지)를 비치하여 도서관에서 가벼운 책 읽기를 하며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였다.



## 2F 집중열람실 공간



### 결과를 정리하다

복도의 일부분을 PC이용 코너로 공간을 재구성하였다. PC, 스캐너, 복합기 등을 설치하여 손쉽고 편리하게 과제 또는 필요한 자료를 조사, 출력할 수 있다.



### 집중을 위한 공간

1층 러닝커먼스가 음악이 흐르고 자유로운 분위기의 열람공간이라면 2층은 정숙하고 조용한 환경에서 공부를 선호하는 학생들을 위한 집중할 수 있는 열람실이다. 자리마다 개별 조명과 개별 콘센트를 설치하여 열람실 이용에 불편함 없이 개인 공부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https://lib.pusan.ac.kr

빠르고 쉽게 개편된

# 도서관 홈페이지

2017년 8월 이후  
4년 6개월 만의 개편,  
이름 빼고 다 바꿨다!!  
정보자원의 빠르고  
효율적 검색,  
직관적인 검색창  
도서관 자체 콘텐츠 홍보와  
활용!!!

뭔데 뭔데?  
뭐시  
바뀌었는데?

## 공간의 효율성과 실용성을 극대화한 메인화면

기존 홈페이지와 다르게 한 페이지에 효율적으로 다양한 정보를 담을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홈페이지 메인의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던 이미지를 대폭 축소하고 다양한 이미지를 슬라이드 배너로 활용할 수 있게 만들었다. 특히, MY LIBRARY 세부 메뉴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었던 이용현황을 메인화면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개편 홈페이지 메인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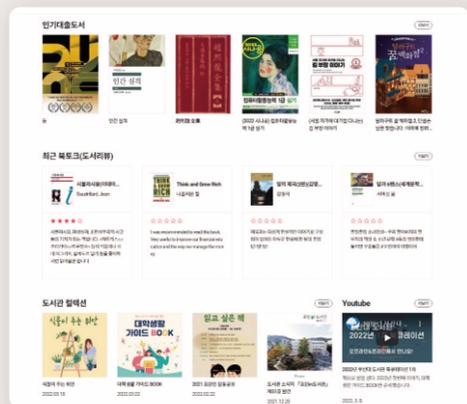
### MY LIBRARY 대시보드

- 현재 대출건수 4건
- 현재 연재건수 0건
- 도서 예약건수 1건
- 미납 연료료 0원
- 희망도서 신청 0건
- 서가에 없는 도서신고 0건

## 역동성과 다양성을 담은 우리 대학만의 컬렉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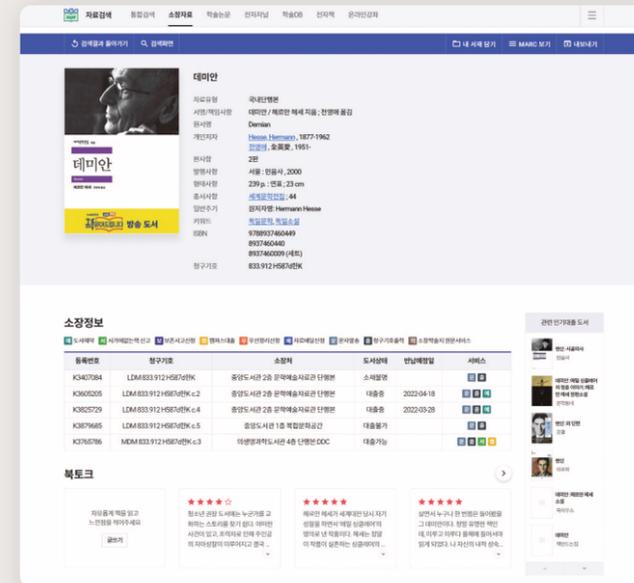
우리 대학의 컬렉션을 홍보하기 위해 이용자들에게 최대한 노출시킬 수 있는 방법을 택하였다. 메뉴에 컬렉션을 추가하여 인기도서, 신착도서, 기획전시도서 등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메인화면 공지사항 아래쪽에 인기 대출도서, 최근 북토크(도서관리뷰), 도서관 컬렉션, Youtube 코너를 배치하였다.

▶ 인기대출도서, 북토크 등 도서관 자체 생산 콘텐츠



## 풍부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도서 상세 페이지

개편 홈페이지의 도서 상세정보 페이지에는 해당 도서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연관 도서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 기존 홈페이지에서 장서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했다면 개편 홈페이지에서는 해당 장서의 관련 인기 대출 도서까지 화면 오른쪽에 제공한다.



▲ 도서 상세 페이지

## 모든 페이지에서 검색을 지원하는 상단 검색 바(bar)

피드백을 받을 때부터 이질적이라고 평을 받은 상단 검색 바(bar)는 개편 홈페이지가 추구하는 바를 가장 정확히 담아내었다고 할 수 있다. 홈페이지의 전체적인 색과 조그름은 이질적이라 판단되는 검정색을 사용하였으나 그로 인해 모든 이용자들의 시선을 집중시킬 수 있었다. 이는 도서관 홈페이지가 최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검색 기능을 강조한 결과이다. 향후 이용자 의견을 수렴하여 검색 바(bar)의 디자인을 개선할 예정이다.



▲ 상단 검색 바(bar)

상단 검색 바는 어느 페이지에서든지 검색창 아래에 위치한 자료의 유형을 선택하여 자료에 대한 즉각적인 검색이 가능하도록 배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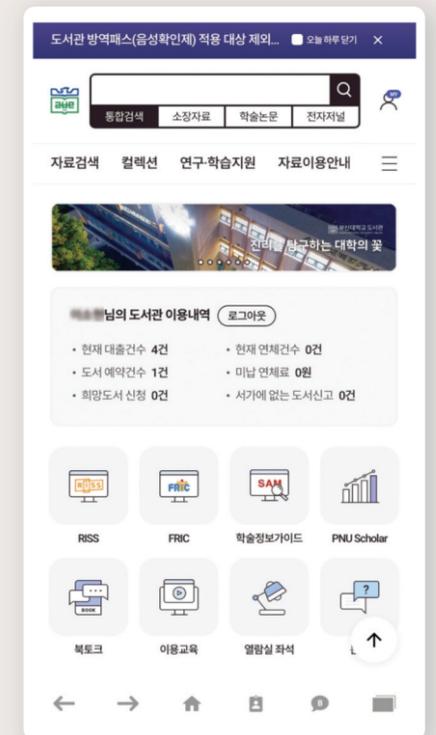
## 찾는 책 옆에는 어떤 책이 있는지 보여주는 서가 브라우징

해당 자료를 검색하면서 마치 실제 서가에서 책을 둘러보는 것과 같은 느낌을 주기 위해 청구기호 브라우징 서비스를 제공한다. 검색한 자료를 기준으로 동일 서가에 있는 자료를 훑어볼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를 통해 이용자의 몰입감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총,균,쇠의 청구기호 브라우징

## 모바일 최적화를 통한 쉽고 빠른 접근



▲ 모바일 홈페이지

최근 이용자들은 PC 보다는 다양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서 도서관 홈페이지에 접근하고 있다. 그래서 PC에서 구현되는 모든 내용이 모바일에 구현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개발하였다. 기존 홈페이지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던 이미지를 대폭 줄임으로써 모바일 앱 로딩 시간을 줄였고 모바일 시스템 안정화로 앱이 튕기는 현상을 개선하였다.

## 인용색인 데이터베이스

# WEB OF SCIENCE

주변에서 종종 듣는 “SCI급 논문”, “SCI급 학술지 게재”라는 표현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SCI는 Science Citation Index의 약자로, 미국의 Clarivate Analytics사에서 제공하는 인용색인 DB인 Web of Science가 선정하여 DB에 수록한 저널들을 SCI급 저널이라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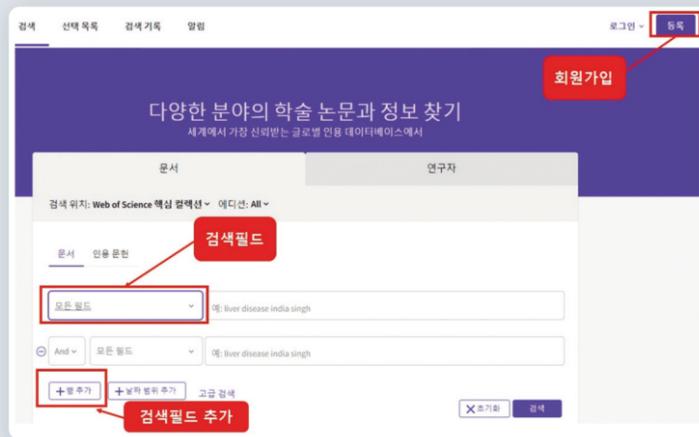
Web of Science에서는 SCI급 저널에 수록된 논문의 정보와 각 논문들의 인용 관계 및 인용 분석 정보를 제공한다. 즉 특정 논문의 선행 연구(Reference)뿐 아니라 동시대의 연구(Related Documents) 미래 연구(Cited by : 인용한 다른 연구)까지 찾아볼 수 있어 원하는 주제 관련 연구의 흐름과 동향을 파악할 수 있다.



### Web of Science란?

- 과학기술, 사회과학, 예술 및 인문학 분야 핵심 저널 14,000여 종에 수록된 서지정보와 인용정보 제공
- Web of Science Core Collection(핵심 컬렉션)  
SCIE(Science Citation Index Expanded, 과학분야), SSCI(Social Science Citation Index : 사회과학분야), AHCI(Art & Humanities Citation Index : 인문/예술 분야), CPCI(Conference Proceedings Citation Index : 컨퍼런스 프로시딩), ESCI(Emerging Sources Citation Index : SCI등재 전 단계의 저널 색인), BKCI(Book Citation Index : 단행본)의 6개 데이터베이스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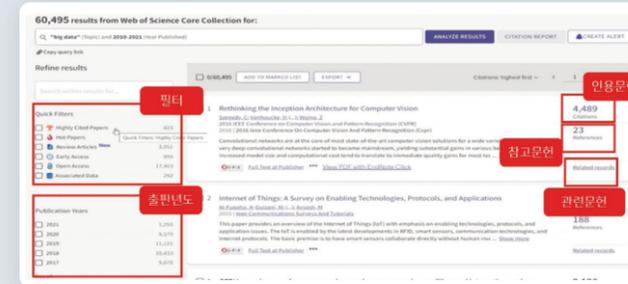
### Web of Science 이용하기



#### 1. Web of Science 접속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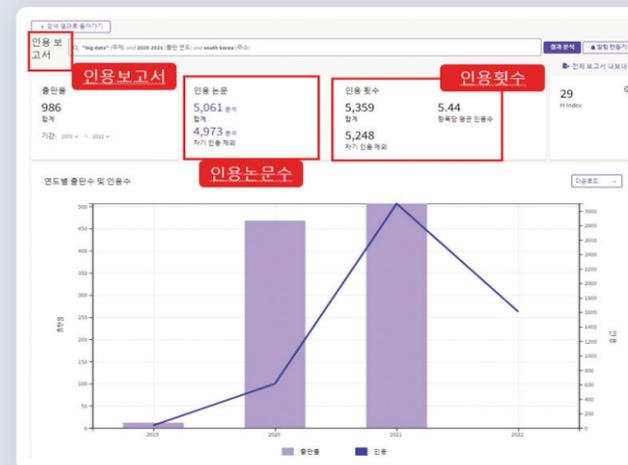
- 부산대학교 도서관 - 자료검색 - 학술 DB - W클릭 - Web of Science(WoS) 선택
- 우측 상단 등록(Register)버튼 눌러서 회원 가입 후 이용
- “모든 필드”에서 검색 필드(주제어, 논문명, 저자명 등) 선택하여 검색어 입력 후 검색

#### 2. SCI급 논문 검색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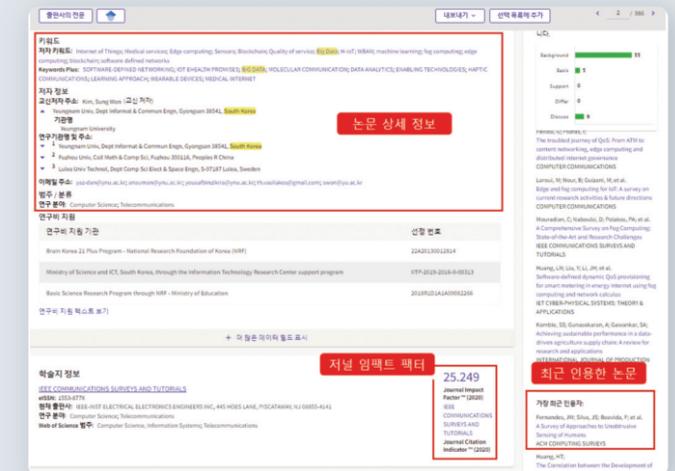
- 필터**  
자료유형, 출판년도, 저자명 등 검색 결과가 많을 때 필터적용 후 재검색
- 인용문헌(Citations)**  
해당 논문이 몇 번 인용되었는지, 인용한 자료는 어떤 자료인지 확인
- 참고문헌(References)**  
해당 논문이 참고자료로 활용한 과거 연구(선행 연구) 정보 확인
- 관련문헌(Releted Records)**  
해당 논문과 1건이라도 참고자료를 공유하는 다른 연구 확인
- 검색 결과 정렬 기준 선택**  
Citation 내림차순으로 정렬하면 관심 분야 논문 중 인용이 많이 된 논문부터 열람 가능

#### 4. 인용 분석 보고서(Analyze Report)



- 시간에 따른 인용 횟수 및 출판물 수, 인용 논문 수를 보여주는 시각화 정보 제공
- 최대 10,000건 이하의 검색 결과가 나왔을 때 분석 지원
- 텍스트 파일 및 엑셀 파일 형식으로 데이터 다운로드 가능

#### 3. 논문 서지 정보 확인



- 검색 결과로 얻은 논문의 제목을 클릭하면 논문의 세부정보 확인 가능
- 해당 논문이 게재된 저널의 정보와 Journal Impact Factor(저널 영향력 지수), 해당 논문의 피인용 횟수, 해당 논문의 인용 문헌 리스트, Core Collection 외에 인용된 다른 데이터베이스, 해당 논문을 가장 최근 이용한 논문 등 확인 가능

#### 5. 유용한 부가서비스

- 검색 결과/인용 알림 만들기 : 과거에 검색한 조건에 부합하는 새로운 논문이 추가되거나, 관심있는 논문을 인용해 간 다른 논문이 Web of Science Core Collection에 포함될 때마다 등록된 이메일로 알림 서비스 제공 (WoS에 로그인 후 “알림 만들기” 클릭)
- 검색 쿼리 링크로 공유하기 : 검색결과 하단의 “쿼리 링크 복사” 선택 후 공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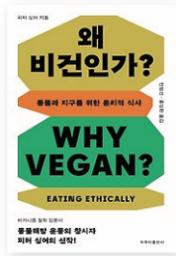
#### 더 상세한 이용 방법을 알고 싶을 때

도서관 홈페이지 학술DB메뉴 -W-Web of Science 매뉴얼 참조  
도서관 정기 이용교육 참가문의  
도서관 연구정보지원팀, 051-510-3159



# 지구의 건강과 우리들의 신선한 영혼을 위한 싱싱한 비건 라이프

## B O O K



### 왜 비건인가?

#### 모두를 위한 비거니즘 철학 입문서

피터 싱어 지음 | 전범선, 홍성환 옮김 | 두루미출판사 | 2021 | 중앙도서관 3층 인문사회자료관 단행본 | HDM 179.3 S617w한

동물 해방 운동의 창시자인 피터 싱어의 동물과 지구를 위한 비거니즘 철학 입문서이다. 책의 제목처럼, 사람들은 궁금해한다. 왜 비건을 해야 하지? 피터 싱어는 이 질문을 1975년부터 고민해 왔다. 동물의 고통과 기후위기, 그리고 팬데믹에 대한 싱어의 생각을 찬찬히 따라가다 보면 다음 한 마디에 가닿게 된다. “동물 해방은 인간 해방이기도 하다.” 인간과 비인간 동물 모두를 위해 비건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며, 그 주장은 '왜 비건인가?'에 대한 명쾌한 답을 제시한다.



### 아무튼, 비건

#### 당신도 연결되었나요?

김한민 지음 | 위고 | 2018 | 중앙도서관 2층 문학예술자료관 단행본 | LDM 811.6 김91 oA

김한민 작가는 한때는 남들처럼 고기를 즐겼던 자신이 어떻게 비건이 되었으며, 어떻게 이를 지속해오고 있는지, 그리고 결국은 동물이 어떻게 자신에게로 다가왔는지 이 책에서 차근차근 풀어내고 있다. 아울러 '비건적인' 작은 노력들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하면서, 완벽함에 매몰되지 않고 천천히 비건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 비건의 핵심은 '거부'가 아니라 '연결'에 있다. 비건이 되는 건 어린아이였을 때 누구나 갖고 있던 동물과의 직관적 연결 고리를, 거대 산업과 영혼 없는 전문가들이 단절시킨 풍부한 관계성을 스스로의 깨우치고 힘으로 회복하는 일이다. 결국 『아무튼, 비건』은 바로 그 연결을 실천하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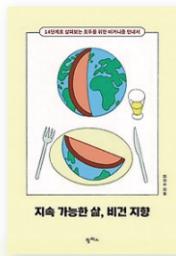


### 비거니즘,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 매일매일 행복해지는 가장 쉬운 방법

오지현 지음 | 동양북스 | 2021 | 중앙도서관 4층 과학기술자료관 단행본 | SDM 641.5636 o79b

사소한 시작으로 행복해지는 지구 공존 라이프<비거니즘,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는 인스타그램에서 비거니즘 실천 인스타그램을 연재했던 오지 구요 작가의 비거니즘 입문서다. 저자가 직접 겪은 이야기를 포함하여 '왜' 비거니즘을 실천해야 하는지를 환경, 동물권, 건강 세 파트로 나누어 친절하게 설명한다. 더불어 비건과 관련하여 알아두면 좋은 상식들과 귀여운 그림이 담겨있어 읽고 나면 당장이라도 지구를 위해 무언가를 실천하고 싶게 만드는 책이다. 말을 하지 못하는 지구를 대신하여 이 책은 말한다.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 사람이 완벽하게 친환경 생활을 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하루에 한 번이라도 노력해주는 것이 지구에 더 큰 도움이 된다고 말이다.



### 지속 가능한 삶, 비건 지향

#### 14단계로 살펴보는 모두를 위한 비거니즘 안내서

피터 싱어 지음 | 전범선, 홍성환 옮김 | 두루미출판사 | 2021 | 중앙도서관 3층 인문사회자료관 단행본 | HDM 179.3 S617w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바로 시행할 수 있는 14단계의 비건 지향 도전 목표를 제시하는 책이다. 비거니즘에 조금의 관심이 있다면 완전한 비건이 되는 것을 지향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모두가 행복해지는 삶을 위해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려준다. 비건을 지향한다는 것은 세상을 좀 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한 노력이다. 먼저 비거니즘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과 선입견을 버리자. 비거니즘이 지향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비건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를 포용하고 결국에는 지구를 살리기 위한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건강과 환경, 동물보호 등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MZ세대(밀레니얼+Z세대)를 중심으로 비건(Vegan, 채식주의·식물성 지향) 바람이 거세지고 있다. 육류 및 동물성 원료 소비를 줄이는 것은 일상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는 가장 간편한 방법이다. 비건 열풍은 미닝아웃(meaning과 coming out의 합성어, 미닝아웃 소비자들은 소비를 통해 자신의 취향과 신념을 알리는데 적극적이다.) 가치소비와도 관련이 있다. 비건에 대해 한걸음 더 가까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책과 영화를 소개한다.

## M O V I E



### 리틀포레스트

김태리, 류준열, 문소리, 진기주 주연 | 임순례 감독 | 영화사 수박 제작 | 2018 | 103분

시험, 연애, 취직 등 매일 반복되는 일상 생활에 지친 주인공 '혜원'이 고향집에 돌아와 사계절을 보내면서 성장해 나가는 이야기다. '혜원'이 띄약 벌에 땀 흘리며 농사를 짓는 장면, 제철 채소로 딱딱 요리를 만들어 먹는 장면은 도시생활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힐링을 선사한다. 무엇보다 직접 키운 작물들로 만든 제철 음식은 고기반찬이 없어도 맛있고 다양한 채식을 이어갈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 주인공 '혜원'은 오랜 친구인 '재하'와 '은숙' 그리고 '엄마'와 정서적으로 교류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만의 삶의 방식을 찾아가는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휴식과 위로를 찾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전하며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는 따스한 위로를 건네는 영화이다.



### 러브레시피

카와구치 하루나, 하야시 켄토 주연 | 쿠사노 쇼고 감독 | 알스컴퍼니 제작 | 2016 | 96분

제목과 다르게 이 작품은 일반적인 로맨스에 초점을 둔 영화가 아닌 푸드테라피를 소재로 하고 있다. 대충 끼니를 때우기 바쁜 현대인에게 한 끼 식사의 소중함에 대해 깨닫게끔 하며 채식을 통해 지친 하루를 힐링하는 이야기이다. 채소파 나기사와 고기파 마키,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두 사람이 '채식의 길'로 함께 들어서며 직접 채소를 기르고, 요리를 만들고, 만드는 방법을 알려준다. 채식을 망설이고 있는 경우나 채식 요리 레시피에 관심이 있는 이들에게 추천한다. 그동안 소개된 채식 관련 다큐멘터리 영화보다 가볍고, 친근한 내용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채식 레시피를 얻을 수 있어 요리에 대한 욕구를 자극하는 영화이다.



### 옥자

틸다 스윈튼, 폴 다노, 안서현, 변희봉, 스티븐 연, 릴리 콜린스 주연 | 봉준호 감독 | 루이스 픽처스, 케이트 스트리트 픽처 컴퍼니, 플랜 B 제작 | 2017 | 120분

비밀을 간직한 채 태어난 거대한 동물 옥자와 강원도 산골에서 함께 자란 소녀 미자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이다. 그들만의 언어와 눈빛으로 서로를 이해하는 옥자와 미자의 교감은 특별한 감동을 전한다. 둘도 없는 친구이자 가족인 옥자를 구출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뉴욕까지 뛰어드는 미자의 예측할 수 없는 여정이 스토리를 흥미진진하게 이끈다. 봉준호 감독은 '옥자'가 채식을 강요하거나 육식을 비판하기 위한 영화는 아니라고 전한다. 공장식 축산업의 실태와 동물권, 육식에 대한 이야기를 친절하고 경쾌하게 풀어낸 어른을 위한 동화같은 영화다.



### 잡식가족의 딜레마

황윤 주연 | 황윤 감독 | 시네마달, 스튜디오 두마 제작 | 2015 | 106분

구제역이 전국을 휩쓸던 어느 겨울 날, 육아에 바빴던 영화감독 윤은 살아있는 돼지를 평소에 한번도 본 적이 없었음을 깨닫고 돼지를 찾아 길을 나선다. 산골마을농장에서 돼지들의 일상을 지켜보면서 이제껏 몰랐던 돼지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런 윤에게 딜레마가 생긴다. 돼지들과 정이 들며 그들의 영리하고 사랑스러운 모습을 알게 되는 한편 농장의 이면을 알게 될수록, 그동안 좋아했던 돈가스를 더 이상 마음 편히 먹을 수 없게 된 것. 육식과 남편 영준과 어린 아들 도영은 식단 결정을 더욱 복잡하게 한다. 우주 공통의 언어 '사랑'으로 돼지기족과 교감하고, 모두가 행복한 삶에 대한 고민을 나누는 <잡식가족의 딜레마>는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엄마, 아빠, 아이들에게 건강한 고민의 단초를 제공할 것이다. 이 시대 모든 가족들이 함께 보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온기 가득한 가족영화이다.

#발견 #이곳

부산에서 국회도서관(국회도서관)이 탄생했다는 사실 알고 있었나요?

# 70년 만에 다시 부산으로, 국회부산도서관 문을 열다

1952년 2월, 한국 전쟁 중 당시 임시수도였던 부산의 서구 경남도청 무덕전에서 장서 3,600여 권과 함께 국회도서관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이후 1953년 여의도로 이전 후 2022년 3월 첫 지방분관인 국회부산도서관이 문을 열기까지, 70년의 시간 동안 쌓인 역사와 전통을 그대로 가지고 다시 부산으로 돌아왔다.

국회도서관이 탄생한 부산에서 70년만의 새로운 출발을 맞이하게 된 국회부산도서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위치 및 이용시간**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국제1로 161, 국회부산도서관
- 평일 09:00 ~ 21:00 (종합자료실, 로비, 전시실)  
09:00 ~ 18:00 (의회자료실, 주제자료실, 어린이자료실)
- 주말 09:00 ~ 17:00
- 휴관일 : 매주 화요일, 법정 공휴일
- 1인 5권 15일 대출가능

**1F**

종합자료실, 어린이자료실, 전시실, 세미나실

**2F**

의회자료실, 주제자료실, 세미나실, 미디어창작실

**3F**

사무공간 및 보존서고



현재 국회부산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도서들은 약 173만 권으로 서울 국회도서관의 소장 도서들을 이관한 것들이 많고(약 168만권), 그 외에는 새로 구입한 도서들이다.

앞으로 매년 약 2만 7000권의 책을 구입할 예정이라고 한다. 관내에 비치된 도서는 자유롭게 열람 및 대출이 가능하며, 보존서고에 있는 도서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검색 및 이용신청이 가능하다.

보존서고 자료들은 대부분 입법이나 의회 관련 자료들이며, 신청 시 관내에서만 열람이 가능하다.

## 1F 로비, 종합자료실, 멀티미디어 코너, 어린이자료실, 전시실

**로비**

새로 들어온 책, 금주의 서평, 여행도서, 국내외 정기간행물이 비치되어 있으며 키오스크를 통해 전자신문을 볼 수 있다.



**종합자료실**

총류, 철학, 종교, 언어, 문학, 역사 분야의 일반도서와 전 주제 분야 접자도서가 비치되어 있다. 일반 공공도서관에서 이용률이 높은 소설과 역사 도서들의 비중이 높다.



**멀티미디어 코너**

원문DB열람 좌석, 일반PC이용 좌석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영상 편집 등의 작업을 하는 이용자들이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해 관련 프로그램이 설치된 미디어 편집석이 있다.

이 밖에 미디어열람석, 오디오북 열람석, 세미나실 등이 있고 회원가입과 온라인 예약을 통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



**어린이자료실**

영유아, 초등학생을 위한 책과 잡지 등이 비치되어 있으며 유아실과 수유실도 마련되어 있다. 부산시와의 협약을 통해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계획 중에 있다.



**전시실 (상설전시실 / 기획전시실)**

**상설전시 '국회 나라의 뜻이 모이다'**

1948년 제헌국회부터 현재까지 국회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다. 또한 VR영상을 활용해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영상으로 체험할 수 있다.

**기획전시 '시작 그리고 또 다른 시작'**

국회도서관 70년의 역사를 각종 유물과 기록물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 2F 의회자료실, 주제자료실

**의회자료실**

의회 법정보다 정보서비스 특화 자료실로 국회 소속기관의 발간자료, 법률 분야 도서, 지방의회 관련 자료들을 이용할 수 있다.

국회, 지방의회 위원들이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의회연구실도 마련되어 있어, 의회 관련 회의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주제자료실**

경제, 경영, 사회, 자연, 과학기술과학 분야의 일반도서가 비치되어 있다. 국회도서관이 사회과학분야 전문 도서관인 점을 살려서, 1층 종합자료실과 구분하여 주제자료실로 운영하고 있다.

주제자료실 내에는 특화자료 코너로 생태학 서가가 운영되고 있다. 이 외에도 테마코너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는 “부산 출신 작가들”, “취미와 배움의 첫걸음을 도와주는 시작”이라는 주제로 테마도서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테마코너는 사서들의 큐레이션을 통해 몇 가지 주제를 선정하여 운영되며, 약 한 달 정도의 주기를 가지고 주제가 변경된다.



기존의 국회도서관은 의회도서관으로서의 성격이 뚜렷해 일반 이용자들에게 가리감이 있었던 반면 국회부산도서관은 의회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은 물론 공공도서관의 역할에도 중점을 둔 지역 맞춤형 복합문화공간이자 도서관으로서 그 기능을 할 예정이라고 한다.

국가도서관으로서의 책임감은 무겁게, 지역균형발전과 주민문화시설로서의 역할은 유쾌하게 해낼 국회부산도서관의 앞으로의 모습이 기대된다.

# FOCUS 시선집중

## 세상의 모든 시학 - 시, 이미지를 만나다

부산대학교 도서관과 Poetica in PNU가 주관하는 세상의 모든 시학 강좌가 올해도 학기 중 매월 넷째 주 금요일 오후 3시 중앙도서관 1층 복합문화공간에서 열린다. 3월에는 문관규 부산대학교 예술문화영상학과 교수의 <한국 영화가 시와 만나는 풍경「동주」,「하하하」>, 4월에는 이강산 시인의 <사진으로 쓰는 시>가 진행됐다. 2022년에는 총 일곱 번의 강좌가 마련되며, 마지막 강좌는 예술공연과 함께 시인을 초청해 특별한 시간으로 꾸려진다. 특히 올해는 교수학습지원센터와 협력해 K-Mooc에 일부 강좌가 업로드될 예정이다. 세상의 모든 시학에 참여하는 부산대학교 학부생에게는 비교과 마일리지 1점이 지급된다.

**강의 소개**

제47강 | 03.25 (금) | 「한국 영화가 시와 만나는 풍경」(동주) <하하하>, 문관규 (부산대학교 예술문화영상학과)

제48강 | 04.22 (금) | 「사진으로 쓰는 시」, 이강산 (시인)

제49강 | 05.27 (금) | 「만화 원대사, 시적 언어와 이미지의 만남」, 윤기현 (부산대학교 디자인학과)

제50강 | 09.23 (금) | 「시와 울려(傳呂)」, 박정현 (경상국립대학교 국악학과)

제51강 | 10.28 (금) | 「(전태권의 푸른언덕 외에 나타난 부산 보수산의 이미지), 김지오 (부산대학교 미술학과)

제52강 | 11.25 (금) | 「장우성의 <새안> 그림과 여백 그리고 시」, 최경환 (부산외국어대학교 한국어문화학부)

※ 강연 신청 및 자세한 내용은 부산대학교 도서관 홈페이지 (<https://lib.pusan.ac.kr>) 참조

공동주관 | Poetica in PNU | 부산대학교도서관



## YES24 북클럽

YES24에서 부산대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북클럽 서비스를 제공한다. YES24 북클럽이란 프리미엄 무제한 월 정액 eBook 서비스로써, 북클럽에서 제공하는 모든 도서를 약정기간 동안 무제한으로 독서할 수 있다. 하나의 계정으로 최대 5대의 기기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다운로드 횟수는 제한이 없다. 하이라이트, 메모, 책갈피 등의 기능을 활용하여 나만의 전자서고를 경험해볼 수 있다. YES24 eBook APP을 다운받아 pnu학번(ID), 1234(PW)로 로그인하면 9월 30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단, 6월 30일 전까지 1회 이상 로그인을 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BookClub

혼자만 알기 아까운  
**YES24 북클럽**  
여기저기 소문내 주세요!

선택의 자유를  
로그인하세요

기타에 로그인 한다면  
왜하지 않아요?

그만 도서관을 떠나지  
확인 바랍니다

BookClub

**eBook이 무료!**

YES24 북클럽과 함께  
무제한 독서 라이프를 시작해보세요  
북클럽에서 만나는 독서의 재미

월 얼마?  
영아기원?

정말!  
3개월만  
주요한 독서도  
가능하네요!

5,300원  
주요한 북클럽 이용권을  
타격적으로 만나세요??

2022 효원인과 함께하는  
**원북원부산**

김호연 작가

40권  
무료배포

참여 대상 : 부산대학교 학부생 (휴학생 참여가능)  
배포 도서 : 총 40권 무료배포 (배포되는 선착순 마감)  
신청 방법 : 중앙도서관 3층 기획홍보팀 직접방문 후 수령  
도서 배포 : 2022년 5월 30일(월) ~ 7월 1일(금) ☆  
독후감 제출 : 2022년 7월 4일(월) ~ 7월 29일(금) ☆  
제출 방법 : 스마트학생지원시스템 → 비교과 → 효원인과 함께 하는 원북원부산  
기타 사항 : 참여자 전원에게 비교과 마일리지 5점 지급 (표결권사 말락자는 제외함)  
독후감은 도서 수령 후 지정된 양식에 따라 작성 필수 (공자서양 참고)  
문의 : 부산대학교 도서관 기획홍보팀 전선규 (051-510-1309)

부산대학교도서관  
Pusan National University Library

## 효원인과 함께 하는 원북원부산

‘효원인과 함께 하는 원북원부산’이 진행된다. 부산광역시 공공도서관이 주관하는 ‘원북원부산 운동’의 연계 프로그램으로, 우리 대학교 학생들이 독서를 통한 문화적 체험을 공유하고 지역민으로서의 동질감과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2022년 원북원부산 도서로 선정된 김호연 작가의 「불편한 편의점」을 선착순 40명에게 배포 완료하였으며 7월 29일까지 독후감을 제출하면된다.

부산대학교 도서관

**연구지원서비스 OPEN**

신청 대상 : 부산대학교 교원(강사) 및 대학원생

신청 방법 : 도서관 홈페이지 > 연구·학습지원 > 연구지원 신청

서비스구분 : \*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구분	내 용	신청하기
특고 학술지 추천	특고 예정인 논문이 초록, 키워드로 바탕으로 관련성 높은 개별 추천	
부실 학술지 점검	부실(저명도) 학술지 또는 출판사 점검 지원	
연구윤리 안내	연구윤리 안내 및 주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정보 제공	GO
참고문헌 표기방법 안내	대륙적인 참고문헌 표기법에 대한 안내 및 참고문헌 작성 지원	
연구지원서비스 제안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제안해주세요!	

문의 : sangin@pusan.ac.kr / 051-510-1306

## 논문 작성중인 대학원생 주목! 연구지원서비스 OPEN 소식

도서관 연구정보지원팀은 연구자들의 연구활동 전반을 지원하기 위해 '연구지원서비스'를 오픈하였다. 투고 예정인 논문의 영문 초록을 제출하면 관련성 높은 학술지를 추천해주는 [특고 학술지 추천 서비스]와, 논문 투고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실 학술지 점검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다. 이외에도 연구 활동 중 연구 윤리와 관련된 특정 상황에 대한 안내가 필요할 경우 [연구윤리 안내] 서비스를, 논문 작성 중 참고문헌 표기법이 궁금할 때 [참고문헌 표기방법 안내]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다. 여기에 없는 서비스가 필요할 경우 [연구지원서비스 제안]에서 직접 제안을 할 수도 있다.

**신청 방법**  
도서관 홈페이지 > 연구 · 학습지원 > 연구지원 신청

**관련 문의**  
도서관 연구정보지원팀 051-510-1306